EU 수출기업을 위한

공시기준(CSRD 및 ESRS) 가이드북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CSRD 및 ESRS)

가이드북

대한상공회의소

Contents

Part. 01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본개념 및 주요내용

CSRD 06

Part. 02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기본개념 및 주요내용

ESRS 14

ESRS Set1 일반 기준 :

① ESRS 1 일반 원칙 15

② ESRS 2 일반 공시사항 16

ESRS Set1 주제별 기준 :

• E1 기후변화 17

• E2 오염 21

• E3 물 및 해양자원 24

•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27

•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31

• S1 자사 근로자 35

• S2 가치사슬 근로자 40

• S3 지역사회 43

•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46

• G1 비즈니스 활동 49

Part. 03

실무자가 알아야 할 10대 핵심 포인트

ESRS 10대 핵심 포인트 54

Part. 04

[참고] ESRS 부록

UNGP 62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6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64

이중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 65

Part 01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본개념 및 주요내용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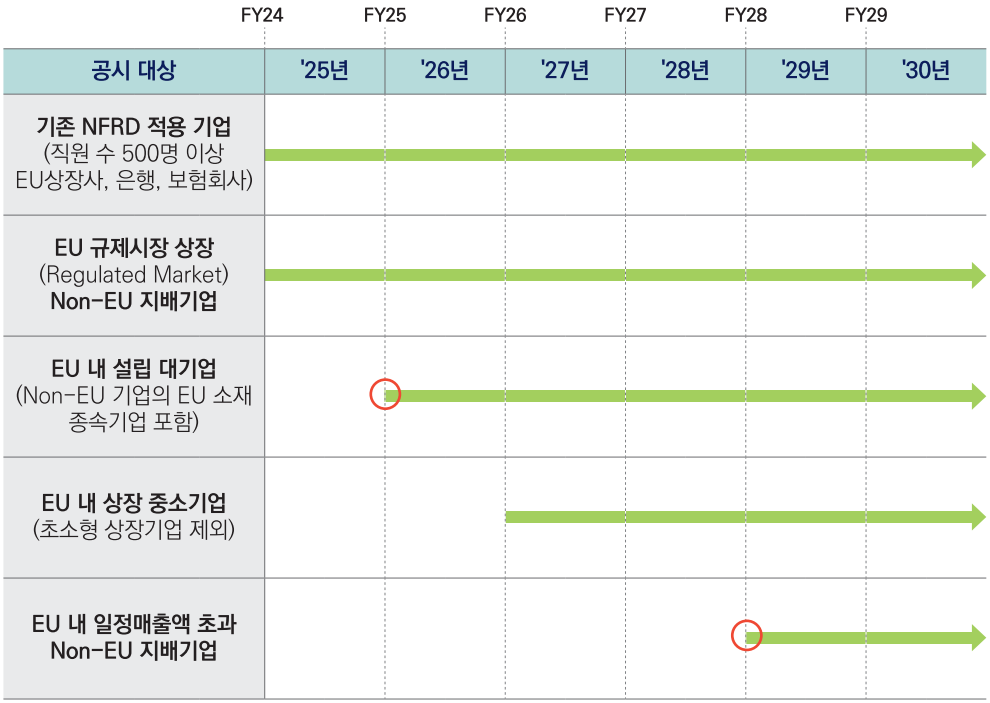
—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의 개념

- EU는 2021년 4월 CSRD를 발표(2023년 1월 발효)하여, EU 내 기업과 EU에 영향을 주는 非EU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CSRD는 EU에서 제정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으로, EU에 지사를 두거나 수출을 하는 기업은 CSRD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 공시를 해야 한다.
- 국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EU에 대기업 또는 상장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 공시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의 공급업체라면 CSRD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명칭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목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시행시기	2025년(FY2024)부터 규모와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



※ ○ 한국기업 적용시점

NFRD와 CSRD

- CSRD는 NFRD(비재무보고 지침)를 보완한 개정안이다. EU는 2014년 10월에 이미 NFRD를 법제화함으로써, EU 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NFRD에 따른 공시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비재무(Non-Financial)라는 명칭 때문에 ESG요소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이 없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이에 EU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속가능성 정보가 재무정보와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타 ESG 정책과의 연계성을 보완하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일관성, 접근성,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CSRD로 개정하였다.

공시 대상	NFRD	CSRD
시행	2018년	2025년(FY2024)부터
적용대상	EU 내 대형 상장사, 은행, 보험사 등	EU 내 대형 상장사, 은행, 보험사 등 + 非상장사, 非EU기업
보고기준	글로벌기준 선택 (GRI, SASB 등)	EFRAG이 제정하는 ESRS
보고방법	연간보고	디지털 태그*를 포함해 연간 보고
대상	직원 수 500명 이상 (약12,000개사)	직원 수 250명 이상 (약50,000개사)
3자 검증	비의무	의무

※ EU에서 추진중인 전자공시 시스템 'ESAP(European Single Access Point)'에서 사용될 디지털 분류 체계

더 알아보기!

CSRD의 배경에는 지속가능금융이 있다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당사국들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는 목표 설정에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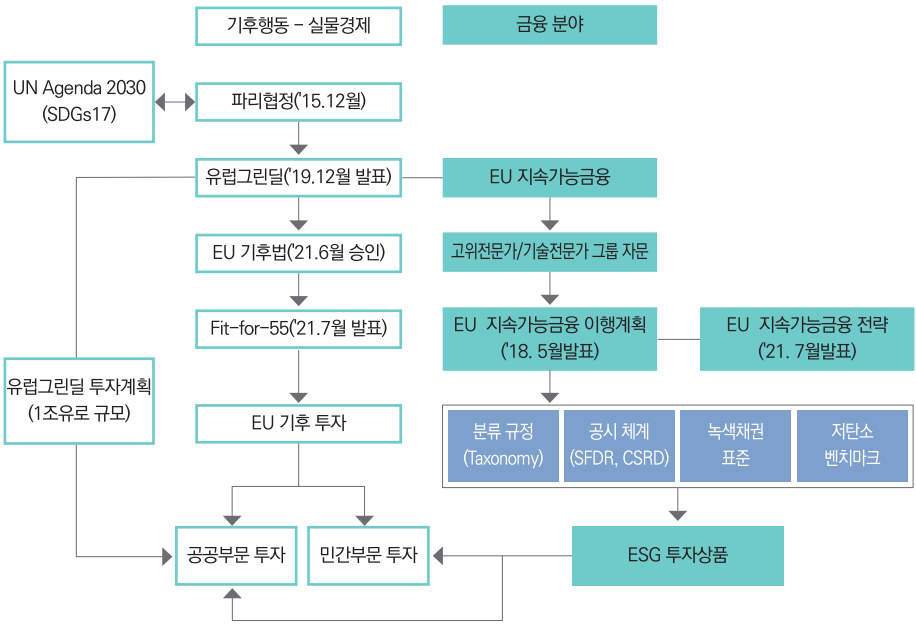
EU는 이후,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마련하고, 2019년 유럽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기후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EU는 모든 경제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가능금융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금융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이 자연스레 지속가능성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U는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세웠고,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분류규정(Taxonomy)과 공시체계인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이 제정되었다. CSRD가 지속가능금융 실현 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 EU의 기후행동과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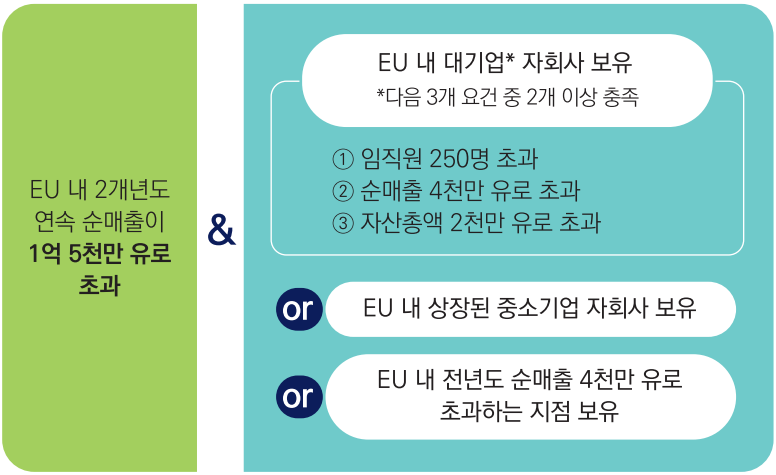
Green Finance in Europe – Strategy, Regulation and Instruments



CSRD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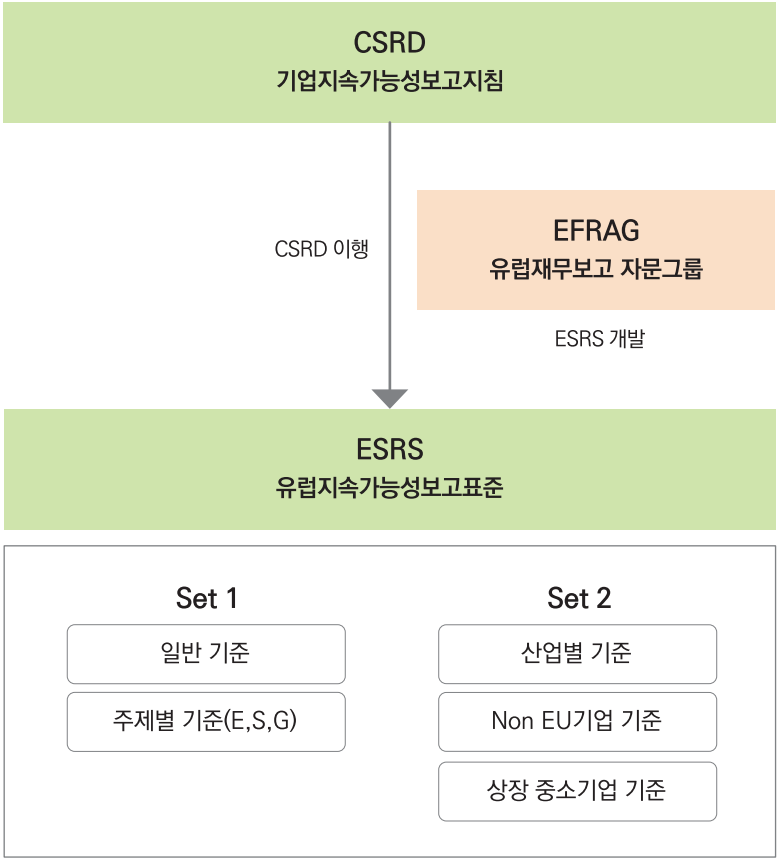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기업(Non-EU 모회사)는 2026년(회계연도 2025년)에 자발적 공시할 수 있으며, 2029년(회계연도 2028년) 부터는 의무적으로 CSRD를 적용하여 공시해야 한다.
- 국내 기업 중 유럽에 수출 및 영업을 하는 대규모 기업들은 CSRD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에,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2025년 부터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내기업(Non-EU 모회사 적용 대상)



ESRS와의 연관성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보고지침인 CSRD를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CSRD 적용 대상기업은 ESRS에 맞춰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ESRS는 Set1과 Set2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Set1은 기업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산업군의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기준이며, 일반 기준과 주제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Set2는 산업별 기준과 非EU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세분화된 조건에 따른 기준들로, 2026년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 이행
EFRAG
유럽재무보고 자문그룹
ESRS 개발
ESRS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
Set 1
일반 기준
주제별 기준(E,S,G)
Set 2
산업별 기준
Non EU기업 기준
상장 중소기업 기준

Part 02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기본개념 및 주요내용

—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SRS Set1 일반 기준 :

① ESRS 1 일반 원칙
② ESRS 2 일반 공시사항

—

ESRS Set1 주제별 기준 :

- E1 기후변화
- E2 오염
- E3 물 및 해양자원
-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 S1 자사 근로자
- S2 가치사슬 근로자
- S3 지역사회
-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 G1 비즈니스 활동

—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Set1의 구성

- ESRS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침인 CSRD를 기업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고 자세하게 서술된 공시 기준이다.
- ESRS의 Set1은 일반 기준과 주제별 기준(환경, 사회, 지배구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일반 기준 중 ESRS 1은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고, ESRS 2부터 본격적인 공시사항을 담고있다.
- 주제별 기준은 환경(기후변화 등), 사회(자사 근로자 등), 지배구조(비즈니스 활동)으로 구분되어, 각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들의 내용을 담고있다.

ESRS Set1

일반 기준	주제별 기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ESRS 1 일반 요구사항	ESRS E1 기후변화	ESRS S1 자사 근로자	ESRS G1 비즈니스 활동
ESRS 2 일반 공시사항	ESRS E2 오염	ESRS S2 가치사슬 근로자	
	ESRS E3 물 및 해양자원	ESRS S3 지역사회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ESRS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출처: 법률신문

ESRS Set1 일반 기준 :
① ESRS 1 일반 원칙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ESRS 보고

- ESRS에 따른 보고, ESRS 준수
- 표준화된 공시 및 기업별/업종별 공시

CSRD 개념의 적용

-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초로써의 이중 중대성 평가
- 공급망 및 가치사슬
- CSRD에 따른 실사

이행에 관한 공시원칙

- 이행 관련 공시의 원칙과 목적
- 정책, 목표, 실행 계획에 대한 참조 원칙
- 진행상황 및 목표 추적

정보 제시 방식

- 일반/비교 정보 제시 원칙
- 불확실한 조건에서의 추정, 선택적 공시
- 보고 기간 종료 후의 사건에 대한 공시 업데이트
- 부정적 영향 및 재무위험 공시

ESRS Set1 일반 기준 :
② ESRS 2 일반 공시사항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명칭

- 보고서 작성 기준, 보고 기간, 보고 범위 및 경계
- 특정 상황 관련 사항 (데이터 추정, 정보의 변경, 오류 등)

목적

- 운영/관리/감독기관의 구성 현황, 책임, 역할
- 운영/관리/감독기관이 다루는 정보
- 경영진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된 보상 정책
- 지속가능성 실사 관련 사항
-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행시기

- 시장 지위, 사업전략, 사업모형, 가치사슬의 특징
-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견해를 반영하는 방식
- 영향/위험/기회와 사업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관련성

영향/위험/기회 관리

- 영향/위험/기회의 식별 및 평가 과정
- 보고서 내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다루는 위치

ESRS Set1 주제별 기준 :
E1 기후변화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전환계획

-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전환계획이 파리협정의 기온상승 폭 1.5℃ 제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탈탄소화를 위한 수단, 제품 및 서비스의 변경, 신기술 도입 등 전환계획에 포함된 주요 활동과 이에 투입되는 자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구조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사업 전환을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효율성, 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사항이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

활동 및 자원

-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활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보고연도에 수행한 주요 활동을 설명하고, 해당 활동의 결과로써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활동 이행 시 소요된 자본과 운영비용을 설명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목표(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Scope 1, 2, 3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절대값으로 공시하고, 2030년부터 매 5년마다 목표값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목표값은 최소한 2030년, 가능한 2050년까지의 목표값을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해당 목표가 지구의 기온상승 폭 1.5℃ 제한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량

- 기업은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여 총 에너지 소비량(MWh)을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 기업은 Scope 1, 2, 3으로 구분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순이익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를 계산하여 공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량

- 기업은 자사 또는 가치사슬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제거 및 저장량(tCO2eq)과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제거한 양을 공시해야 한다.

내부 탄소가격

- 기업은 내부 탄소가격제를 적용하는 경우, 내부 탄소가격제의 유형(그림자 가격, 내부 탄소 수수료, 내부 탄소 펀드 등), 체계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활동, 지역, 법인 등), 탄소가격의 계산 방법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잠재적 재무영향

- 기업은 물리적 리스크, 전환 리스크, 기후 관련 주요 기회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예상하여 공시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차이

기후변화 대응의 방식은 크게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의 진행속도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있다.

'적응'은 피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건설하거나,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의 품종 개량등의 방법이 있다.

➡ **이 두가지 방식은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두 방식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내부 탄소가격제

'내부 탄소가격제'란 기업 내의 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예측된 탄소배출량에 가격을 매기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출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 1톤당 2만원, 신규 공장 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탄소 1톤당 5만원 등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내부 탄소가격제는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웠던 탄소배출량의 영향력을 금융 언어로 바꿈으로써, 기업의 가치판단과 투자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의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관리함으로써,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의 차이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사업장 침수 피해, 가뭄으로 인한 용수 구입비용 상승 등이 있다.

'전환 리스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정책 및 기술의 변화로 인한 위험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저하되는 업무 효율,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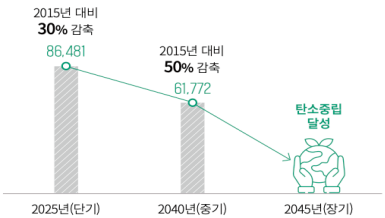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예시

HL만도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실가스 배출 관리

HL만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2015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원인에 따라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여해 매년 달성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보일러, 업무용 차량운행, 비상발전기 가동 등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직접배출(Scope 1)로 분류하고, 사업장 전력 소비와 외부에서 공급받은 스팀이나 온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온실가스는 간접배출(Scope 2)로 분류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중 직접 배출량은 9.6%, 간접 배출량은 90.4%를 차지합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 사슬에 의해 간접 유발된 온실가스 배출 항목 6개를 Scope 3으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합니다. HL만도는 매년 단기적인 탄소 배출량 목표를 달성해 나가며 2045년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단위: tCO_2eq)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총 배출량 (Scope 1, 2)		HL만도	tCO_2eq	78,569	70,738	**71,647**
		HL클레무브	tCO_2eq			**11,229**
Scope1	배출량	HL만도	tCO_2eq	6,508	6,448	**6,852**
		HL클레무브	tCO_2eq			**215**
	원단위	tCO_2eq/십억 원		2.51	2.46	**2.53**
Scope2	배출량	HL만도	tCO_2eq	72,061	64,290	**64,796**
		HL클레무브	tCO_2eq			**11,014**
	원단위	tCO_2eq/십억 원		27.77	24.51	**27.16**
Scope3		HL만도	tCO_2eq	1,314,092	1,020,831	**1,489,530**

*국내 사업장 기준

Scope 3 배출량 세부 내역

Scope 3 배출항목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자본재	Scope 1 & 2 미포함 연료 및 에너지 활동	운송 및 유통	사업장 폐기물	판매 제품 사용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tCO2eq)	819,466	26,775	8,126	7,454	1,094	626,616
배출항목 설명	외부 구매 제품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외부 구매 자본재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에너지의 생산, 수송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운송 및 물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폐기물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최종 소비자의 제품 사용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Good Point

온실가스배출량

이 기업은 Scope3(기타 간접배출)를 산정한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E2 오염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오염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환경 오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활동 및 자원

- 기업은 오염 관련 활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오염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의 개별 배출량과 유해물질 및 고위험 유해물질과 관련된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설정한 목표가 법률에 따른 의무적 목표인지, 혹은 자발적 목표인지 명시해야 한다.

유해물질

- 기업은 유해물질과 고위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 생산, 사용, 조달되는 유해물질의 총량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나 배출물로써 사업장을 떠나는 유해물질의 총량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고위험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잠재적 재무영향

- 기업은 오염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예상하여 공시해야 한다.

잠재적인 재무 영향의 정량적 수치를 명시하고, 불가능할 시,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재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추정에 사용된 가설 및 불확실성의 수준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

- 기업은 대기, 수질, 토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을 공시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이란, 지름 5mm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뜻한다. 미세플라스틱은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생산된 경우와 플라스틱 제품이 바람, 파도, 자외선 등 외부 환경으로 작게 조각난 경우로 구분되며, 현존하는 미세플라스틱의 2/3은 외부 충격으로 작게 조각난 미세플라스틱이다. 예를 들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하면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작은 크기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물고기가 먹이로 오해하여 섭취하고, 이러한 물고기를 인간이 다시 섭취하면서 인간 체내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일 수 있다.
이렇게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은 단기간 배출이 어렵고, 환경호르몬을 배출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독성 및 오염물질을 함께 옮겨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유해물질'과 '고위험 유해물질'의 차이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유럽연합 내에서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화학물질 규제제도인 REACH와 CLP 규정을 통해 유해물질과 고위험 유해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유해물질(Substance of Concern)은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유해성을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고위험 유해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은 더 높은 유해성을 가진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뜻한다. 고위험 유해물질은 제품 내에 해당 물질이 함유된 경우, 규제기관과 소비자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3년 6월 기준, SVHC로 지정된 물질은 총 235종이며 매해 늘고 있는 추세다.

금호석유화학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관리

금호석유화학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표준을 근거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며,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사업장별 표준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기획실이 전체적인 오폐수 프로세스를 관리·감독하며, 폐수처리장 운영 부서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비·보수·관리와 모니터링, 폐수 관련 시험 분식 의뢰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상 폐수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각 부서에 관리 및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금호미쓰이화학, 폐수 전기분해 기술을 통한 폐수 저감

금호미쓰이화학은 폐수를 염소,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및 수소로 재생하는 '폐수 내 염 농축 및 전기분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마무리된 이후 실제로 해당 기술을 공정에 적용할 경우 연간 55만톤의 폐수를 전기분해하여 재활용할 수 있어 폐수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2021년 11월 출원하였고 2023년 1월 특허 등록에 대한 결정서를 취득하였으며, 2023년 4월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금호석유화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해 오수, 폐수, 유입폐수, 방류수, 이상 폐수 등 폐수 우형에 따라 수질 기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울산고무공장, 울산수지공장은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발생 폐수에 대한 물리·생물·화학적 처리를 실시하고 법적 기준치(방류수 허용 기준) 이내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여 인근 공공폐수처리장(용암공공폐수처리시설)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울산고무공장은 일반 배수로에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배수로를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예방하고 있으며, 울산수지공장은 T-N(총질소) 제거 설비를 설치하여 폐수 내 T-N(총질소)의 농도와 배출량을 저감하였습니다. 여수정밀화학공장도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리·생물·화학적 처리를 실시하여 여수산업단지의 종말 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연구소의 기술팀과 함께 폐수량 자체의 감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향후 증설되는 공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호티앤엘은 방류한 공공 폐수서리 시설에서 샘플링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오염물질 농도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1회씩 사업장 주변 12개소의 수질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Good Point

수질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 기업은 각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기준으로 정량화된 목표를 수립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폐수 유형에 따른 수질 기준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일반 배수로에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그로부터 오염물질 누출 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E3 물 및 해양자원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물 및 해양자원과 관련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활동 및 자원

- 기업은 물 및 해양자원 관련 활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물 및 해양자원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질개선, 해양자원(해산물, 해양광물, 자갈 등) 관리, 물 소비량 감소와 관련된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설정한 목표가 법률에 따른 의무적 목표인지, 혹은 자발적 목표인지 명시해야 한다.

물 소비량

- 기업은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물 소비량을 공시해야 한다. 총 물 소비량, 물 위험지역에서의 물 소비량, 재활용 및 재사용 된 물의 양을 명시하고, 이 값을 계산한 방법론 및 가정 등 구체적인 상황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잠재적 재무영향

- 기업은 물 및 해양자원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예상하여 공시해야 한다.

- 잠재적인 재무 영향의 정량적 수치를 명시하고, 불가능할 시,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재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추정에 사용된 가설 및 불확실성 수준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물 소비량'이 중요한 이유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로 이루어져 해수는 풍부하지만, 우리가 먹고 쓸 수 있는 담수는 2.6%에 불과하다. 물건을 생산하고, 농작물을 키우는 등 물을 이용해야 할 곳은 많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가뭄과 산업활동으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수는 줄어들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0%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 상태를 겪을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심각한(severe)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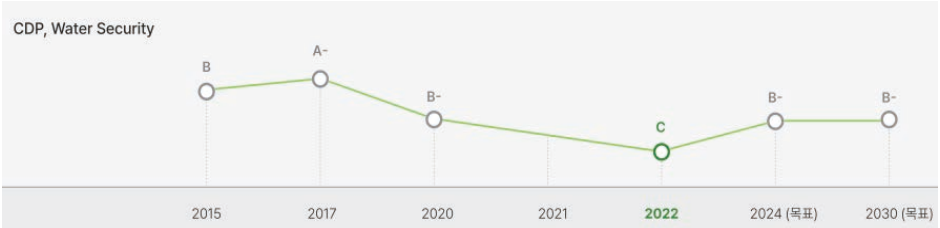
글로벌 기업들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글(Google)은 2030년까지 소비되는 물의 120%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실제로 2021년 구글 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약 30억 갤런의 물을 사용했고, 그 중 63억 갤런은 회수하였다.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정화한 것이다. 구글 외에 메타, MS 등의 글로벌 IT기업도 사용량보다 더 많은 물을 복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예시

코웨이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수자원 사용 및 리스크 관리

코웨이는 생산 운영, 사업장 전반에 사용되어지는 수자원의 양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수자원 배출 등급은 대부분이 하수 등급으로, 기존 구축되어진 하수 관거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수자원을 사용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배출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2015년부터 물 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 Water Securit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C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물 소비량이 높은 기업 위주로 CDP 평가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코웨이는 현 수준의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코웨이는 물 관련 기업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CDP 평가에 지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강화된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하여 2024년 목표를 B-로 정하고, 2020년 수준으로의 평가 등급 회복을 위한 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Good Point

수자원 관리

이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 중 수자원 사용량이 많은 편이 아니지만, ESG협의체와 위원회를 통해 수자원과 관련된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수자원 사용량을 매년 모니터링하며 수자원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전환계획

- 기업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위해 기업의 전략과 사업모델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지에 대하여 공시해야 한다.

정책

- 기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활동 및 자원

- 기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활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 또한, 완화계층 구조(회피, 최소화, 복원/재생, 보상/상쇄)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명시해야 하며, 실행계획에 생물다양성 상쇄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프레임워크 또는 국가 정책/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영향지표

- 기업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관련된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이 항목은 중대성 평가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이슈에 대한 사업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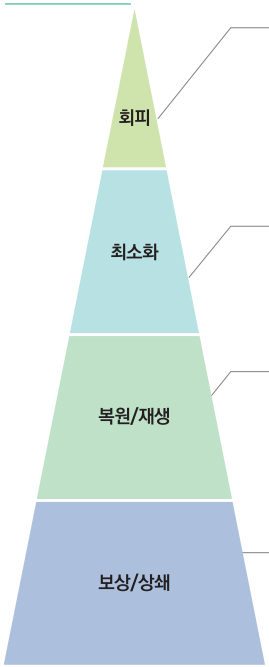
잠재적 재무영향

- 기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예상하여 공시해야 한다.
  잠재적인 재무 영향의 정량적 수치를 명시하고, 불가능할 시,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재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추정에 사용된 가설 및 불확실성 수준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생물다양성의 완화계층 구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위한 완화계층 구조는 총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회피 (avoidance)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단계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네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이다. 활동의 예로는, 생물다양성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개발 작업을 취소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있다.

2 최소화 (minimization)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로, 개발하는 토지의 면적을 줄이는 등의 활동이 있다.

3 복원/재생 (restoration/rehabilitation)

회피와 최소화를 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단계로, 개발 작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생태계 파괴를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4 보상/상쇄 (compensation/offset)

위의 세 단계를 모두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발생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단계로, 생물다양성 손실이 발생한 지역에 보상을 제공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해지는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은 최근 주요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196개 당사국의 대표들과 국제기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가 채택되었다. 196개 당사국들이 함께 추진해야 할 생물다양성 실천목표와 이행계획에 합의한 것이다.

GBF는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육지, 해안, 해양 등 지구의 30%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등의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당사국은 이를 반영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은 그동안 기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사업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배출, 수자원 사용 등으로 인해 사업지역의 생태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써 그 의미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예시

LG생활건강 2022 ESG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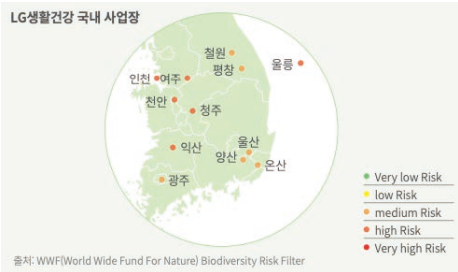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가이드라인과 LEAP(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 등 글로벌 평가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를 참조 하여 개발했으며, Crisis & Risk Management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리스크 평가 시 의존성, 영향도와 관련된 생물다양성 리스크 전반을 고려하여 식별하고, 자체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인접 지역,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 범위에 포함합니다.

STEP 01 사업장 위치/Value Chain 분석 > STEP 02 의존도 및 영향도 측정 > STEP 03 저감계획 수립, 이행 및 공시

생물다양성 위험 지역



출처: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Biodiversity Risk Filter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국내 사업장 기준)

* 2022. 12월 말 기준

구분	사업장 수(개)	면적(㎡)
사업장	19	1,831,724
평가 실시	3	154,018
전체 사업장 대비 평가 실시 사업장 면적 비율(%)		8.4
위험 노출도 식별	1	21,744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1	21,744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사업장 비율(%)		100

**야생동물 보호구역: 울릉샘물 사업장/생태경관보전지역: 해당사항 없음

주요 생물다양성 리스크 식별 및 완화 조치

밸류체인 (사업 단계)	주요 사업장 (지역)	LG H&H의 자연 자본에 대한 의존 (Dependency)	생태계에 줄 수 있는 영향 (Impact)	LG H&H의 보전 활동 (완화 활동)
Upstream (원재료 생산 및 가공)	주요 원재료 구매지역 • 한국 : 울산, 온산 사업장 • 미국, 일본, 중국 등	사업 부문별 원료채취/취급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및 종다양성에 높은 의존도 존재 • 화장품: 천초화, 섬전호, 엉겅퀴 등 자생식물 • 생활용품: Palm Oil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전면 의존 • 음료: 설탕 등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의존도 존재	(Impact: High) 제품원료 개발 확대로 인한 식물자원 수급 저하 리스크 및 보호종에 대한 생물다양성 관련 규제 증가	**[자생식물 보존]** 청주와 울릉도 Beauty Botanical Garden의 직접 운영 및 신규소재 개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 글로벌 NGO 및 RSPO 활동지지, 울산 및 온산 사업장 RSPO 분리(Segregation) 인증을 최초 획득 • MICA(운모): 인증된 천연운모 및 합성운모 지속 확대

Good Point

생물다양성

이 기업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각 사업단계, 사업장에서 생태계에 줄 수 있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완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가치 보전활동과 더불어 지역기관, 전문 외부기관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E5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와 관련된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활동 및 자원

- 기업은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활동과 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등을 도모하는 순환형 제품 설계, 순환 재료 사용률 증가, 재생가능한 자원의 지속가능한 조달, 적절한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계층 구조에서 어느 계층에 해당하는지 명시해야 하며, 설정한 목표가 법률에 따른 의무적 목표인지, 혹은 자발적 목표인지 명시해야 한다.

자원유입

- 기업은 사용되는 제품(포장 포함), 재료(중요 원자재 및 희토류 명시), 물, 부동산, 장비 등 중대한 자원 유입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공시할 때 사용된 데이터 계산 방법론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자원유출

- 기업은 제품 및 재료, 폐기물 등 중대한 자원 유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에 대한 정보에는 총 폐기물 발생량을 포함해야 하며, 회수작업(재사용, 재활용 등)과 처리작업(소각, 매립 등)을 통한 폐기물은 유해 폐기물과 非유해 폐기물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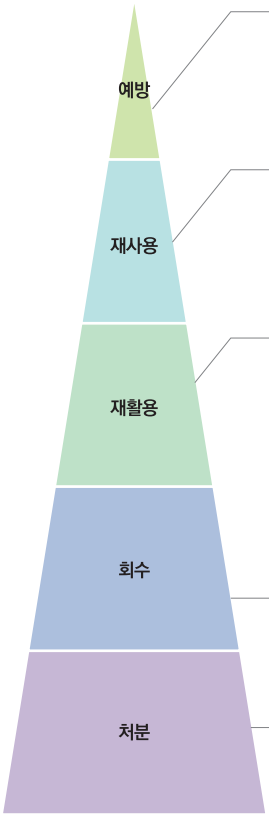
잠재적 재무영향

- 기업은 자원사용 및 순환경제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한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예상하여 공시해야 한다.
  잠재적인 재무 영향의 정량적 수치를 명시하고, 불가능할 시,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재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추정에 사용된 가설 및 불확실성의 수준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폐기물 계층 구조

폐기물 계층 구조는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예방 (prevention)

애초에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단계로, 가장 바람직한 단계이다. 예를 들어,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포장을 피하는 것이 있다.

2 재사용 (reuse)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단계이다. 다시 사용가능한 폐기물을 여러 번 사용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폐기한 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있다.

3 재활용 (recycling)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계이다. 폐기물을 분리, 정제,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폐기한 유리병을 세척하고, 녹이고, 가공하여 새로운 형태의 병을 만드는 것이 있다. 재활용도 좋은 폐기물 처리 방식이지만,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밖에 없기에, 재가공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재사용이 재활용보다 더 우위에 있는 단계이다.

4 회수 (recovery)

폐기물을 에너지로 회수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것이 있다.

5 처분 (disposal)

폐기물을 처분하는 단계로, 위의 4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각, 매립 등의 방법을 통해 폐기하는 것을 뜻한다.

순환경제 vs 선형경제

선형경제(Linear economy)는 조달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 뒤 폐기하는 일방향적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폐기물을 증가시키고 자원을 고갈시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인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의 조달부터 제품의 사용 이후까지 자원의 고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경제 구조이다.

선형경제

롯데쇼핑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순환경제

자원순환 및 지속가능한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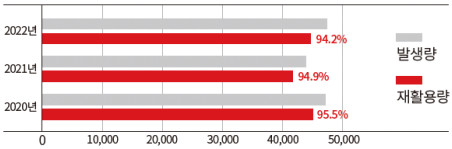
롯데쇼핑은 국내 최대 유통기업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강화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의 확립을 위해 사업부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체계

롯데쇼핑은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별 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해 매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합성수지, 음식물, 폐유, 폐지방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적극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절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영수증 발행,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 등 폐기물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현황

(단위 : ton)



구분	단위	2020	2021	2022
폐기물 발생량	ton	47,253	43,723	46,975
폐기물 재활용량	ton	44,532	41,512	44,841
폐기물 재활용 비율	%	94.2	94.9	95.5

마트

롯데마트는2023년부터 매장 내에 발생하는 지류의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종이 영수증, 종이 가격표, 종이 전단지를 모두 전자화 했습니다. 고객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받을 때 롯데마트 APP을 통해 '스마트영수증 만 받기' 설정만으로 탄소중립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또한, 상품이나 가격이 변경되면 매번 새로운 종이로 인쇄해서 바꿔야 했던 가격표를 모두 전자화하면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는 2023년 1월부터 약 25년간 발행해온 '지류 전단지'를 모두 모바일로 대체하면서 연간 130톤의 종이 사용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는 연간 30년생 원목 약 7,000그루를 보존하고, 약 200톤의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효과와 같습니다.

백화점

롯데백화점은 2017년 모바일 영수증 시스템 도입 이후, 백화점 자체 앱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이 영수증 발행량이 2019년 대비 80% 감소하였고, 2022년 5월까지 누적 500만 명의 고객이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영수증 제작부터 폐지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모바일 영수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2년 8월에는 환경 보호 차원의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전면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 기반의 '롯백리뷰' 서비스도 오픈하였습니다. '롯백리뷰' 서비스는 모바일 영수증을 지급 받은 고객이 텍스트 리뷰 작성 시 100 L.POINT, 포토 리뷰 작성 시 300 L.POINT를 지급해주는 서비스로 모바일 영수증 사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고객 간의 쇼핑 경험을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8월에 오픈하여, 2023년 3월까지 약 44만 건의 리뷰가 작성되었으며, 2023년 하반기에는 롯백 리뷰 서비스에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여 고객의 모바일 영수증 활용도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Good Point 순환경제

이 기업은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과정에서의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pp을 통해 스마트영수증 받기를 이용하여 종이로 된 영수증, 전단지 등을 모두 전자화 하였으며 고객들의 모바일 영수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도입하는 등의 자원순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S1 자사 근로자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자사 근로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ILO 기본 원칙 및 노동권 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책에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다루고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 또는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괴롭힘과 차별을 철폐하고 다양성을 증진하는 내용이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소통절차

-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자사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사 근로자(근로자 대표자 가능)의 참여 여부, 참여 단계와 빈도, 참여의 결과를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적용하는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고충처리채널

- 기업은 자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자사 근로자가 우려 및 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활동 및 효과

- 기업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자사 근로자 관련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자사 근로자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에는 자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된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기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한다.

근로자 특성

- 기업은 자사 근로자 중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주요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총 근로자 수, 풀타임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수, 이직률, 성별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비고용 근로자 특성

- 기업은 자사 근로자 중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총 근로자 수 등을 포함하여 주요 특성을 설명해야 한다.

단체교섭

-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근로 및 고용조건이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정도 등 자사 근로자와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다양성

- 기업은 최고 경영진의 성별 분포와 근로자의 연령 분포를 공시해야 한다.

적정 임금

- 기업은 자사 근로자에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모든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국가 및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사회보장

- 기업은 실업, 질병, 재해, 출산 등에 의해 근로자의 소득 상실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장애인

- 기업은 자사 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 기업은 자사 근로자에 제공하는 교육 및 기술개발의 활동을 공시해야 한다.

건강 및 안전

-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을 관리하는지 여부와 자사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건강 악화, 사망 관련 사건 수를 공시해야 한다.

일과 삶의 균형

- 기업은 자사 근로자가 가족 관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임금격차 및 총보상

- 기업은 여성과 남성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 비율과 최고 보수를 받는 자와 전체 근로자의 평균 보수 간의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사건 및 고충

- 기업은 보고기간동안 심각한 인권침해(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등), 괴롭힘, 차별과 같은 업무 관련 사건과 고충의 발생 건수를 명시하고, 관련 벌금 및 제재 또는 보상액을 공시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근로자 인권에 관한 대표적인 원칙

* p 62~64 참고

1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따라야 할 지침으로, 인권 보호, 인권 존중, 피해 보상 및 구제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2 ILO 기본원칙 및 노동권 선언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기준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선언한 것으로, 협약의 자유, 단결권, 차별금지, 아동노동금지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3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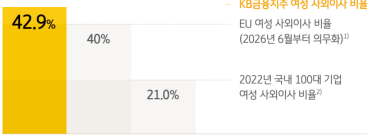
다국적기업들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인권존중, 근로자 권리 보호, 환경 보호, 부패 및 뇌물방지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KB금융그룹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B Diversiy

KB 금융지주 ESG위원회는 2022년 6월, 그룹 내 다양성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성 중장기 추진전략인 'KB Diversiy 2027'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B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계층과 성별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KB 금융그룹은 중장기 다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3단계로 구성된 다양성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로드맵의 단계별 이행을 통해 'KB Diversiy 2027'의 지향점인 '다양한 계층 포용'과 '양성평등 구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KB 금융그룹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여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 금융지주는 2020년 금융회사 중 최초로 여성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는 국내 금융지주사 최초로 3인의 여성 사외이사가 재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지주 여성 사외이사 비율



[1] 출처: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성별 균형 개선에 관한 지침'

[2] 출처: 유니코써치의 '2022년 기준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 현황 분석'

다양성 중장기 추진전략 Diversity 2027

KB Diversity 2027

KB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7년까지 계층, 성별 다양성 확대 추진

지향점	다양한 계층 포용	양성 평등 구현	
부문	채용 다양성	성별 다양성	역량 다양성
Target	다양한 계층 채용 확대 15% 장애인, 보훈, 글로벌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 신규채용 비율	여성 리더 양성 20% 부점장 및 경영진	여성 핵심전문가 육성 30% 본부팀장 및 은행 기업금융 팀장
운영 방향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채용 기회 확대 추진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승진 배제) 및 유리벽(여성의 특정 직무 담당 기회 배제)을 제거하고, 양성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다양성 로드맵

STEP 1	STEP 2	STEP 3
2022년~2023년	2024년~2025년	2026년~2027년
기반 및 문화 조성	고도화 실현 및 확대	KB 다양성 구현
• 임직원 다양성 이해도 제고 및 조직문화 확산	• 다양성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제도적 지원 확대	• 다양한 계층 채용 15% 실현 • 여성 리더 20% 양성 • 여성 핵심 전문인력 30% 육성

Good Point 다양성

이 기업은 근로자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성별과 장애의 여부 뿐 아니라 보훈, 글로벌,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까지 채용하여 근로자의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S2 가치사슬 근로자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가치사슬 근로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ILO 기본 원칙 및 노동권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정책에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다루고 있는지 명시해야 하며, 자사에 가치사슬 업체와 협력 및 거래 시 적용하는 행동강령이 있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한다.

소통절차

-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가치사슬 근로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치사슬 근로자(근로자 대표자 가능)의 참여 여부, 참여 단계와 빈도, 참여의 결과를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적용하는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고충처리채널

- 기업은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가치사슬 근로자가 우려 및 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활동 및 효과

- 기업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가치사슬 근로자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에는 가치사슬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된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기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가치사슬 근로자'란?

가치사슬(Value Chain)은 기업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을 가치사슬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원재료 구입, 연구개발, 제조 및 생산, 출하, 유통, 마케팅, 영업, 제품 수리,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중 가치가 발생하는 전과정에서의 근로자를 가치사슬 근로자라 칭한다. 국내에서는 공급망, 협력사 근로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예시

SK이노베이션 2022 ESG보고서

공급망 관리 정책

공급망 관리 방향

SK이노베이션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안정적 조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ESG 관점으로 개편한 공급망 관리 체계 및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협력사 기준 협력사 ESG 행동규범 준수 동의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해외 협력사 대상 확대 적용을 위해 대상 선정 후 준수 동의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 협력사의 구매 윤리 규범 준수를 강화하고자 도입한 윤리 실천서약서 동의 서명 프로세스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는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하기 위해 기본계약서(General Teams and Condition)뿐만 아니라 협력사 ESG 행동규범 준수 동의와 윤리실천서약서 동의 서명을 필수적으로 선행하도록 하여 미동의한 협력사와는 계약 진행이 불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협력사 ESG관리 강화를 위해 ESG 리스크 사전/정기평가 개편 및 그에 따른 구매시스템 개선, ESG 우수 협력사 인증/포상 신설, 전년도 평가결과 기반 맞춤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ESG 리스크 관리체계 및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공급망 관리 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구매 윤리 규범	• 공정투명거래 기본원칙 • 법규 및 국제협약의 준수(인권선언, UNGC 등) • 위반행위 보고 및 제보자 보호
협력사 ESG 행동규범	• 인권 및 노동, 안전·보건,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기업윤리 준수, 분쟁광물 사용 금지, 경영시스템
입찰평가 가이드	• 협력사 선정 원칙, 입찰 프로세스, 세부지침 등
구매관리규정 중 구매일반원칙	• 동반성장 및 노동, 인권, 반부패, 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공급망 관리 체계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안정적 조달

공급망 관리 목표 설정
- 중기 목표 설정 및 세부 이행 계획 수립
- KPI 내 ESG 전략 목표 반영

공급망 관리 정책 참여 확대
- 협력사 ESG 행동규범 준수 동의 서명 의무화
- 윤리 실천 서약서 동의 서명 의무화

공급망 ESG 리스크 진단 및 평가 실시
- 협력사 분류 (4개 그룹)
  - 전략적 중요도 및 ESG 리스크 기준
- 전 협력사 대상 ESG 리스크 평가
  - ESG 사전/정기평가
- 핵심협력사 대상 ESG 리스크 평가
  - ESG 심화평가 및 실사

※ 2023년 고위험 협력사 대상 확대 실시

공급망 성과 개선 및 지원
- 협력사 ESG 리스크 개선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 동반성장 ESG 프로그램 운영
  - 상생협력활동(경영, 교육, 금융, 기술)
  - 공정거래와 소통창구
  - 책임 있는 구매

Good Point

공급망 관리

이 기업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 입찰평가 가이드, 구매일반원칙 등의 내용을 관리 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급망 전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공급망 기업에 경영, 금융,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공급망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S3 지역사회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ILO 기본 원칙 및 노동권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소통절차

-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주민 및 주민 대표자 가능)의 참여 여부, 참여 단계와 빈도, 참여 결과를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적용하는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고충처리채널

- 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지역사회가 우려 및 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활동 및 효과

- 기업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지역사회 관련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지역사회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된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기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한다.

S-OIL 2022 ESG보고서

지역사회지킴이

에쓰-오일은 서울, 울산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함께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마포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 문화예술&나눔 공연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를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곡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구도일 카페도 마포 관내 복지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 및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위치한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울산복지재단 운영, 태화루 건립 및 문화행사 후원, 울산 복지단체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지킴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예산이 전년대비 46% 증액되어 집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울산 지역사회 예산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유소와 TS&D Center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 환경 성과

지역 문화생활 수준 향상: 5,768명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육기회 향상: 145명
지역 난치병 어린이 건강 향상: 5명

주요 Business 성과

지역주민의 회사에 대한 관심과 우호성 개선: 96,768명
지역 사회공헌활동 언론노출: 256회

구도일 카페

환경지킴이

에쓰-오일은 소중한 자연과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환경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8년 문화재청과 함께 멸종위기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을 시작하여 수달, 두루미, 어름치, 장수하늘소 등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전문단체의 연구·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천연기념물 교실 및 국내 유일의 대학생 천연기념물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여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하였으나, 보호 전문 단체들에 대한 활동 후원은 지속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조선시대 어보의 상징인 '남생이'를 신규 보호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기 멸종위기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의 15년간 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문화재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기업 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통한 환경적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 측정 교육 제공 및 경영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 환경 성과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 5,000마리
녹색구매: 33,348백만원

주요 Business 성과

환경보호활동 언론 노출: 71회

천연기념물지킴이 캠페인

Good Point 지역사회 상생

이 기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활동으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공연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복지 관련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 기업은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 ILO 기본 원칙 및 노동권 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이러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소통절차

-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소비자 대표자 가능)의 참여 여부, 참여 단계와 빈도, 참여 결과를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 적용하는 책임자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

고충처리채널

- 기업은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가 우려 및 고충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활동 및 효과

- 기업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기회를 추구하기 위한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활동과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

- 기업은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관련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목표에는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련된 중대한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는 기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한다.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예시

대한항공 2023 ESG보고서

소비자중심경영

적극적인 소비자중심경영(CCM) 활동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2020년 12월 항공사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2022년 12월 재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CCM 인증 이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법정 인증 제도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평가해 해당 기업에 CCM 인증이 부여됩니다. 대한항공의 CCM 인증은 '고객감동과 가치창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전 부문에 걸쳐 항공 소비자 편의를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익사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수행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CCM 인증 이후 대한항공은 CCM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중심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 서비스개선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NPS(Net Promoter Score, 순추천고객지수)를 도입하는 등 CCM 정착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항공교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겠 습니다.

고객의 말씀(VOC) 운영

대한항공은 현장의 목소리를 고객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객경험관리 및 서비스 동향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 '고객의 말씀(Voice of Customer)'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항공은 고객 만족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명제로 삼고, 변화된 고객 요구에 맞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갈 예정입니다.

VOC 의견 반영으로 개선된 서비스 사례

보너스 항공권 대기 예약 기능 채널 확대 과거 보너스 항공권 대기예약은 서비스센터 유선통화를 통해 가능했기에, 전화연결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객이 적시에 보너스 항공권 대기 예약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서비스센터 외에 홈페이지에서도 보너스 대기예약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고 불편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출입국 제약사항 안내 솔루션 도입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출입국 규정 및 제한사항이 실시간 변경되고 추가됨에 따라 각 국가별 안내 콘텐츠가 방대해져 고객이 본인에게 필요한 여행 정보를 적절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2년 3월부터 홈페이지 상 출입국 규정 메뉴에 각국의 출입국 정보를 Interactive Map 형태로 여행자 조건(출발일/목적지/국적/백신접종 유무 등)에 맞게 검색하도록 신규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고객들은 위치 확인 기반 세계지도에서 직접 여행하려는 국가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어. 직관적이고 빠른 정보탐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Map 이용한 노선별 최저가 안내 도입 코로나19 이후 여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고객들이 여행 가능한 지역의 최신 스케줄과 해당 노선의 최저 운임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2022년 6월부터 Map 형태의 안내 페이지를 새롭게 신설 하였습니다. 출발지/목적지/날짜를 기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Map을 이용하여 노선별 6개월내 최저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일반석 기내식 메뉴 홈페이지 등재 2022년 12월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상위 클래스 대상으로 조회 서비스 제공 중인 기내식 메뉴를 일반석에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기내 > 기내서비스 > 기내식 메뉴에서 출/도착지 또는 항공편명을 입력하면 세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이 모든 클래스에서 기내식 메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기내식 종류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한식/양식 기내식 메뉴 개발 한식 부문에서는 기존 비빔밥과 덮밥 메뉴에 더하여 밥/국/주요리/반찬으로 구성된 한식정찬, 제육쌈밥, 고등어조림, 비빔국수와 만두, 묵밥, 김치볶음밥 등의 기내식 메뉴를 새롭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양식 부문에서는 쇠고기 품질을 향상시키고 웰빙 트렌드에 맞추어 디톡스 건강주스를 개발하고 샐러드 건강식 메뉴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채식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한 제철의 식재료를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과 정갈함을 담아낸 한식 비건 메뉴를 제공하였습니다. 비건 음식은 탄소배출 면에서도 다른 식단 대비 우월한 자연 친화적 메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인 서비스 강화 2022년 10월 '세계 베스트 소믈리에 대회' 최연소 챔피언 이자 대한항공 와인 컨설턴트 마크 알머트(Marc Almert)와 협업하여 최종 52종의 신규 와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포도 품종인 카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피노누아로 생산한 와인을 포함하여 말벡, 템프라니요, 그뤼너 벨트리너 등 다채로운 품종으로 생산한 와인이 추가되어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와인 리스트에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와인(바이오다이나믹, 유기농, 비건)이 약 50%를 차지하여 맛과 환경, 건강을 고려한 와인들을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Good Point

소비자 중심 경영

이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취득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중심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

ESRS Set1 주제별 기준 :
G1 비즈니스 활동

공시 요구사항의 주요 내용

정책 및 문화

- 기업은 기업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공시해야 한다.
  정책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수용하는지, 부패 또는 뇌물수수를 방지하는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관리

- 기업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급망에 대금 지급의 연체를 방지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공급업체 선정 시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는지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

부패 및 뇌물수수 대응

- 기업은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의 조사 주체(조사위원회 등)가 독립적인지 등을 설명해야 하며, 자사 근로자에 관련 교육을 제공하거나, 공급망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등은 예방활동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

- 기업은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반부패 및 뇌물방지 관련 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건수와 벌금,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기준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 및 로비

- 기업은 로비활동을 포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지급 관행

- 기업은 특별히 중소기업(SME)에 대한 대금 연체와 관련하여 지급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삼성전자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omlpiance & Ethics
준법과 윤리경영

삼성전자는 법과 윤리 준수를 최우선 경영원칙으로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준법과 윤리 경영원칙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

삼성전자는 CEO 직속 조직인 전사 Compliance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Chief Compliance Officer)이 모든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에 참석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사 Compliance 팀은 준법경영을 위한 IT 시스템인 CPMS(Compliance Program Management System)를 운영 중이며, 부패방지,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인권과 노사, 환경안전 등 주요 분야별 담당 부서와 함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삼성전자는 임직원은 물론 협력회사, 외부 이해관계자와 함께 법과 윤리를 지켜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경영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원칙

1.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2.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3.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중한다.
4.	환경, 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5.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임직원 가이드라인

· 한국어 포함 총 15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
· 세부 내용은 국내외 전 임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 온라인,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 거래업체 대상으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Good Point

윤리경영

이 기업은 윤리경영원칙을 수립하여 부패방지,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영역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준법문화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전담조직을 통해 준법과 윤리경영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기업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Part 03

실무자가 알아야 할
10대 핵심 포인트

—

이중 중대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

—

기후변화 전환계획 수립이 필수 공시사항

—

수자원도 관리 필요

—

생물다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자원사용과 순환경제의 중요성

—

환경부문 잠재적 재무영향까지 검토 필요

—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와 소통 요구

—

사회부문 소통절차와 고충처리채널 필요

—

공급망의 평가와 관리 중요성

—

반부패가 중심이 되는 윤리경영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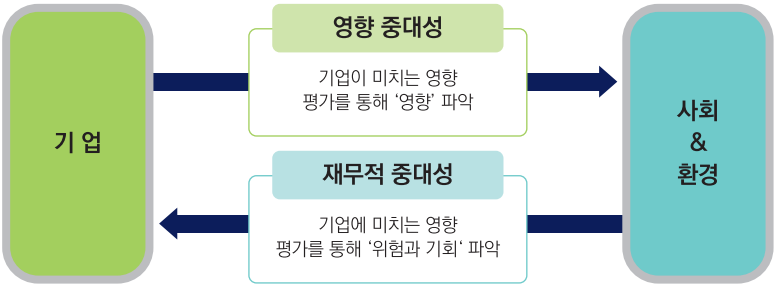
—

ESRS 10대 핵심 포인트

1
Point

이중 중대성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

- ESRS가 타 국제 공시기준과 다르게 갖고 있는 독창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중 중대성 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중 중대성은 사회·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재무적 중대성'과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영향 중대성'이 동등하게 고려되는 중대성 평가 방법이다.
- ESRS는 영향 중대성 평가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고, 재무적 중대성 평가를 통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ESRS 전반에 걸쳐 영향, 위험과 기회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ESRS에 따라 공시하기 위해서는 이중 중대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ESRS를 만든 EFRAG에서는 기업들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총 9가지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평가 수행 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2
Point

기후변화 전환계획 수립이 필수 공시사항

- ESRS는 기업 활동으로 야기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환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E1 기후변화'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으로 제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현황을 알아야 미래를 계획하는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 기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Point

수자원도 관리 필요

- ESRS는 'E3 물과 해양자원'이라는 주제를 별도로 두어 공시를 요구하는 만큼, 수자원에 대한 관리도 필수적이다. 용수 취수량과 폐수 배출량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량 감소는 물론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어류 및 자갈 등 해양자원을 사용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4
Point

생물다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ESRS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는 '생물다양성'이다.
  생물다양성은 떠오르는 ESG 이슈 중의 하나로, 많은 국제 기준과 평가 기관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이다. 생물다양성은 말 그대로 사업이 운영되는 지역에서의 생물 종의 다양성과 개체 수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생물다양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간 기업이 행한 사업이 환경에 끼친 영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 오염물질 배출, 토지 개발 등의 활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존할 것을 약속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초안에서는 생물다양성 전환계획이 필수 공시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보다 완화되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이 떠오르는 환경 이슈인 만큼,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업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련 정책과 목표까지도 마련해야 한다.

5
Point

자원사용과 순환경제의 중요성

- 'E5 자원사용과 순환경제'는 ESRS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주제이다. 이 주제에서의 핵심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사용량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 구체적으로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조달한 원재료의 총량과, 그중 재생가능한 자원의 사용량,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량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원을 제품과 폐기물의 형태로 내보낼 때에도, 제품에 포함된 재료 또는 폐기물의 재사용 가능성, 포함된 물질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궁극적으로 기업은 재생 불가능한 즉, 재사용과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및 매립 처리해야 하는, 환경의 오염을 야기하는 자원의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6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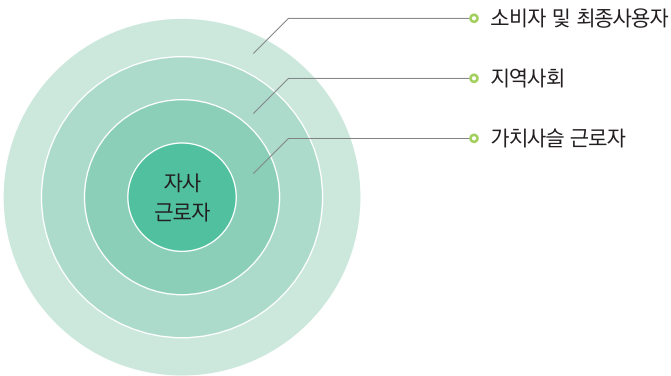
환경부문 잠재적 재무영향까지 검토 필요

- ESRS는 환경부문 모든 주제에 대해서 잠재적 재무 영향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주제에 관한 위험과 기회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재무 영향을 정량적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판매하고 있던 기존의 제품 패키지를 친환경적인 소재로 변경하여 판매함으로써 예상되는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비재무적 활동을 정량화된 금전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7
Point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관리와 소통 요구

- ESRS는 사회부문이 주요 이해관계들로 구분되어 있다. 자사 근로자, 가치사슬 근로자, 지역사회,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로 구성이 되어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SRS는 자사 근로자는 물론, 가치사슬의 근로자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사업의 운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 ESRS는 각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 및 소통 프로세스를 통해 그들의 관심사와 우려 사항에 대응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함을 규정짓고 있다.



8
Point

사회부문 소통절차와 고충처리채널 필요

- ESRS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받아들이는 '소통절차'와 그들의 불만이나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ESRS는 단순히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의견이 사업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지도 묻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내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충처리채널이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가 해당 채널을 신뢰하는 지와 고충을 제기한 개인이 보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기업은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절차와 그들의 고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9 Point

공급망의 평가와 관리 중요성

- ESRS는 '가치사슬 근로자'라는 주제를 통해 공급망 기업 근로자의 인권까지도 고려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가치사슬 근로자는 자사근로자 다음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서, 기업의 활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로부터 제시되는 의견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외의 대부분의 주제에서 가치사슬을 포함한 연결기준의 정보를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배구조부문에서는 공급망 기업을 선정하여 계약할 시, 사회적 및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는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만큼 공급망까지 ESG관점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Point

반부패가 중심이 되는 윤리경영이 중요

- ESRS에서의 지배구조부문은 한 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과 사회부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띈다. 그러나 지배구조는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 지배구조부문의 주요 핵심은 '반부패'이다. 기업의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부패와 뇌물수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처리와 대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업운영을 얼마나 윤리적으로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Part 04

ESRS 부록

—

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이중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

—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의 개념

- 2011년 EU는 기업에 인권 존중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였다. UNGP는 기업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권위 있는 규범이며, UNGP에 따라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준들이 개정된 바 있다.
- UNGP는 정부와 기업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와 원칙을 정의하고, 국제인권법 아래 모든 사람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국내 기업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 예방, 조사, 처벌 및 시정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세부적으로, UNGP는 '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 '사법적·非사법적 구제책 마련'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축(보호)는 입법, 정책 및 규제를 통해 기업 내 인권보호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 축(존중)은 기업이 인권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도입해야 함을 확인한다. 세 번째 축(구제)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피해자가 합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구제수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LO 기본 원칙 및 노동권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선언의 개념

- 1998년에 채택되고 2022년에 개정된 ILO 기본원칙 및 노동권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은 ILO에 내재적인 가치들을 확인하는 선언이다. ILO 회원국들은 협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선언을 약속하게 되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원칙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의미한다. ILO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노동 표준을 설정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지침이다.
- 선언은 다음의 네 가지의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모든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단체교섭에 간섭하거나 단체교섭에 참여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강제노동 금지

임금을 제공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노동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를 떠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동노동 금지

ILO는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나이 이상을 근로가능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ILO 협약에 규정된 성매매, 불법 행위, 인신매매, 무력 충돌 등과 같은 유형의 아동 노동이 발생할 때는 국가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과 직업에 대한 차별금지

차별적인 행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끼친다. 모든 기업은 국가 및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근무직원이 다양한 언어, 문화,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LO 선언의 개념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이 미치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정된 모범적인 행동규범이다. 가이드라인은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도 수락하였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자체적으로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11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영역	내용
1. 개념과 원칙	다국적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과 가치 명시
2. 일반정책	관련 법률과 규정, 인권과 노동권 등의 핵심 원칙의 준수
3. 정보공개	기업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권고
4. 인권	인권 침해의 방지와 해결
5. 고용 및 노사관계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노사관계, 고용기회 창출
6.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등의 환경 보호 조치
7.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직·간접적인 부패행위 금지
8.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준수
9. 과학 및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R&D) 활성화
10. 경쟁	정당한 경쟁
11. 조세	세금 납부 의무 이행

이중 중대성 평가 가이드라인

이중 중대성 평가란?

-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가 이중 중대성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기업은 공개할 중요 이슈를 선정할 때, 영향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이중 중대성 평가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 전반에 걸쳐 모든 중대한 영향/위험/기회를 파악하는 평가 방법이다. 이때, '영향'은 영향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하고, '위험'과 '기회'는 재무적 중대성 평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영향 중대성: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사업의 실질적/잠재적,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영향'에는 기업의 자체 운영 및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된다.
- 재무적 중대성: 지속가능성 이슈가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사업의 개발,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금융 접근성, 자본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기회를 파악하는 것이다.
- 기업은 ESRS의 모든 주제별 기준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여 어떤 이슈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중 중대성 평가 과정

1단계 기본 맥락 이해하기 & 이해관계자 정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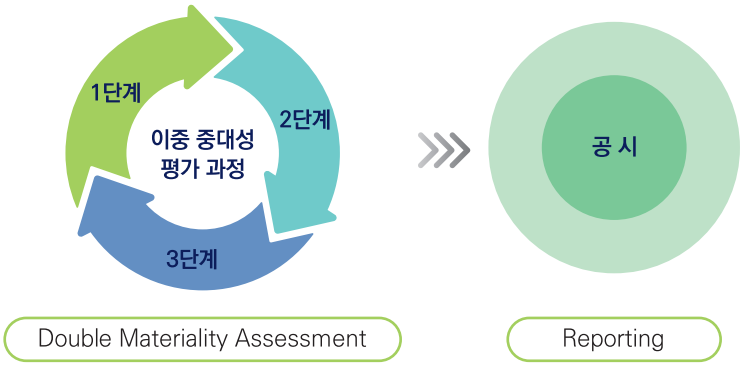
1. 기업의 활동,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관계, 가치사슬 등 기본 맥락 분석하기
2.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적용할 기간 정의하기
3. 기업 관련 법률 및 규제 환경 분석하기
4.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 정의하기

2단계 중대성 이슈(영향/위험/기회) 파악하기

1. 영향/위험/기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2. 잠재적인 중대성 이슈와 관련 영향/위험/기회 파악하기

3단계 중대성 평가를 통해 영향/위험/기회의 최종 목록 결정하기

1. 영향 중대성 평가 시행하기
2. 재무적 중대성 평가 시행하기
3. 영향 및 재무적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통합하고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이중 중대성 평가 방법 (9가지 가이드라인)

1	동등한 중대성	각 이슈를 영향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 두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는가?	
		각 이슈를 영향 중대성과 재무적 중대성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였는가?	
2	지속가능성 이슈 파악	각 이슈를 수준(68p)*에 맞게 분류하였는가?	
		이슈 선정 시, 널리 적용되는 보고 기준의 지표를 고려하였는가?	
		이슈 선정 시, 이슈의 전문성을 가진 다중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였는가?	
		이슈 선정 시, 이슈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기회,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3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	이해관계자와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파악하였는가?	
		사용자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였는가?	
4	가치사슬 및 기간	각 이슈의 중대성은 전체 가치사슬과 모든 기간에 걸쳐 평가되었는가?	
5	차별화	사업 분야 및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였는가?	
6	정보의 품질	과거에 관련 이슈에 관한 보고서 작성 경험이 있었는가?	
		보고 정보의 주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가치를 고려하였는가?	
7	정책, 목표 및 법률	EU 및 국제 수준의 ESG/지속가능성 정책 이니셔티브의 보고 의무를 고려하였는가?	
8	영향 중대성 평가* (68p)	1단계	지속가능성 이슈 지정하기
		2단계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영향 중대성 매개변수 평가하기
			a. 영향의 규모 측정하기
			b. 영향의 범위 측정하기
			c. 영향의 복구 가능성 측정하기
		3단계	위 모든 과정을 통해 예비 영향 중대성 도출하기
9	재무적 중대성 평가* (69p)	1단계	지속가능성 이슈 지정하기
		2단계	재무적 영향의 트리거를 평가하고 중요한 재무적 영향 파악하기
			a. 자원의 지속적인 사용 가능여부 평가하기
			b. 관계에 대한 의존도 평가하기
		3단계	위 모든과정을 통해 재무적 중대성 도출하기

지속가능성 이슈 분류 수준

지속가능성 이슈를 선정할 때, Lv1~3까지 중 동일한 급의 이슈들을 선정해야 한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이슈의 레벨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슈 풀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레벨 수준의 이슈를 구성하여 식별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영향 중대성 평가

2-a.영향의 규모 척도	
5	매우 높음
4	높음
3	중간
2	낮음
1	매우 낮음
0	없음

2-b.영향의 범위 척도	
5	글로벌함
4	널리 퍼짐
3	중간
2	부분적임
1	제한적임
0	없음

2-c.복구 가능성 규모 척도	
5	복구 불가
4	복구 매우 어려움/ 장기간 소요됨
3	복구 어려움 / 중기간 소요됨
2	복구 가능
1	복구 쉬움
0	복구 매우 쉬움

예비 영향 중대성 = 영향의 규모 점수 + 영향의 범위 점수 + 영향의 복구 가능성 점수

단, 영향의 규모, 범위, 복구 가능성에서 5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이슈는 공식의 결과와 무관하게 중대성 이슈로 선정해야 함

예비 영향 중대성

- **12점 이상** 대단히 매우 중요함
- **10-12점** 매우 중요함
- **8-10점** 중요함
- **5-8점** 조금 중요함
- **5점 미만** 아주 조금 중요함

재무적 중대성 평가

2-a.자원의 지속적 사용		금융	제조	자연	지식	인간	관계
4	지속적 사용 불가능						
3	장기적 사용 불가능 (단기적 사용 시 고비용)						
2	장기적 사용 시 고비용 (단기적 사용 가능)						
1	단기·중기·장기적 사용 가능						
0	단기·중기·장기적 사용 시 비용 없음						

2-b.관계에 대한 의존도		금융	제조	자연	지식	인간	관계
4	현재/향후 강력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현재/향후 강력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현재/향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						
1	현재/향후 부정적 반응의 징후 있음						
0	현재/향후 부정적 반응 없음						

재무적 중대성 = 2단계에 따른 두 가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따라 결정

재무적 중대성

- **4점** 대단히 매우 중요함
- **3점** 매우 중요함
- **2점** 중요함
- **1점** 조금 중요함
- **0점** 아주 조금 중요함

EU 수출기업을 위한

ESG 공시기준 (CSRD 및 ESRS) 가이드북

발행일 2024. 2.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

디자인·인쇄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이 책의 저작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상공회의소의 허락 없이는 무단으로 싣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FSCTM 인증을 받은 친환경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